

한-사우디 43년만에 공동성명 “수소경제 등 투자 확대”

尹-빈 살만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 지속 심화·발전”

네움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금융 협력 합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에 채택됐다.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은 1980년 단 한 번이었다.

양측은 우선 44개 항 중 첫 번째 항에서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동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 분야 투자 시장 확대·고용 창출 기술 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제조업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네움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아, 흥해 개발, 로신 주택개발, 디리아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산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외에도 교통·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비전 2030, 네움 프로젝트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금융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

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테러리즘·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협력도 증진하기로 했다.

국내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파트너십 범위도 확대된다.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 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을 겨냥,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 중동 지역 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전함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지역 안정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사우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의 2034년 월드컵 유치 신청을 환영한다”며 사우디의 스포츠 분야 조직 역량과 선진적 능력을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 국빈 방문에 앞서 카타르 국영 통신사 QNA와 서면 인터뷰에서 “카타르와 그동안 에너지, 건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협력 분야를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과 카타르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게 되며, 서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협력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세용 삼성전자 회장이 23일(현지시간) 리야드의 네움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힘 “여야 협의·정부 동의 거쳐 국회 심사 과정 R&D 예산 확보”

“꼭 필요한 부분 최대한 복원”

국회의원은 2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과 관련, 꼭 필요한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R&D 사업 예산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도 뒤처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간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도록 우리 당에서도 최

선을 다해 정부와, 또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송 의원은 다만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R&D 예산은 국가경쟁력의 초석이라고 알려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어나기만 했다”면서 “그런데 단순한 R&D 예산 확대가 과연 국가 성장에 초석이 될 수 있는지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제대로 못 내는 게 R&D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R&D 예산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적재적소라는 말처럼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이 ‘결정위 간사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R&D 사업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R&D 예산 삭감 문제

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라고 묻자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고려하되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는지 현장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론이라 정할 정도로 그렇게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여당 입장에서 충분히 감안하면서 예산 심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로 꾸려진 여당 새 지도부는 ‘민생’을 화두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시사하면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대폭 삭감됐던 R&D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의심사업 점검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신설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리단 신설은 올 8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합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 사업

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환수·제재 등 지자체 조치 현황과 이행 상황 등을 관리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요한 “국힘 혁신위 구성 26일까지 마무리”

국회의원이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하면서 혁신위원회 구성 작업도 본격화 하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24일 국회의원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 “목요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인선을 완료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게 목표라는 의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혁신위원회는 7명 정도로 꾸리지 않을까 한다”며 “원내 인사와 원외 위원장

이 포함되지만, 당 밖의 인사들이 과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 사무처와 지도부는 인 위원장에게 위원 후보를 몇몇 추천했다. 원내에서는 지도부와 혁신위의 가교 역할을 할 인사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에 따라 전략기획부총장이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 취약 지역인 수도권 일부 의원이 혁신

위원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 수부터 구성 면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전권을 쥐고 살펴보고 있는 만큼, 당의 추천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인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도구다.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도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혁신위 역할은) 기초를 다지는 거다. 당을 위한 기초, 그리고 더 크게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